

결 정

2018 - 1060 신문윤리강령 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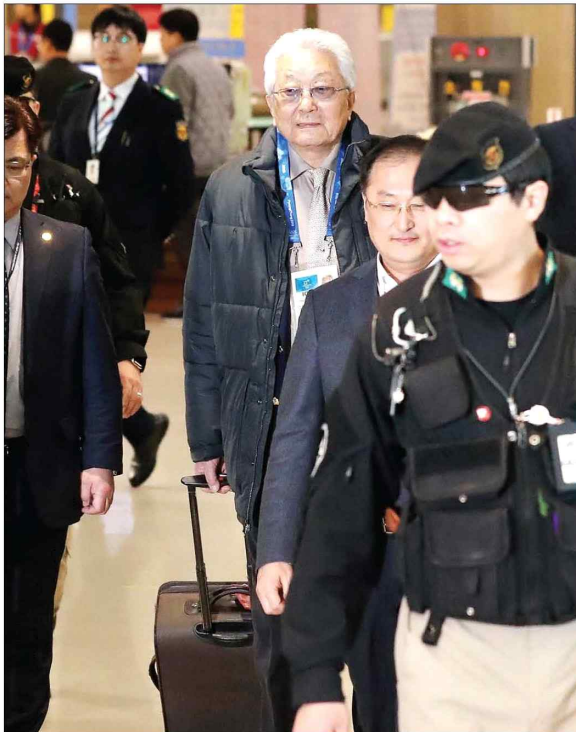
1. 충청매일 발행인 변 보 석
2.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

주 문

충청매일 2018년 2월 5일자 1면 「정년을 앞둔 장웅...“평창올림픽이 마지막”」 제목의 사진, 경북신문 2월 21일자 1면 「쇼트트랙 태극낭자 올림픽 2연패」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(충청매일)=



정년 앞둔 장웅...“평창올림픽이 마지막”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 위원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. ▶관련기사 16면

(경북신문)=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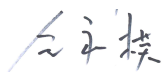

쇼트트랙 태극남자 올림픽 2연패 20일 오후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 결승 경기. 금메달을 딴 대한민국 대표팀이 비디오 판독 결과 지나오자 기뻐하고 있다.

충청매일은 뉴시스가 2월 4일 오후 전송한 장웅 북한 IOC 위원의 입국사진을, 경북신문은 뉴시스가 2월 20일 전송한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사진을 각각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1면에 게재했다.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제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| | | |
|-----|-------|-------|
| 위원장 | 김 용 담 | 기.용.담 |
| 위원 | 정 송 호 | 정.송.호 |
| | 장 명 국 | 장.명.국 |
| | 박 재 현 | 박.재.현 |
| | 장 인 철 | 장.인.철 |
| | 김 규 식 | 김.규.식 |
| | 강 희 | 강.희 |
| | 하 윤 수 | 하.윤.수 |

김 영 모 
박 미 경 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.